URINET

등록번호 : 경기마00107 | 등록일 : 2006년 8월 7일
발행일 : 2014년 4월 1일 | 간 별 : 격월간 | 발행인 : 박공영
편집인 : 박공영 | 발행처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본 사 : 경기도 이천시 진상미로 924번길 87
Tel. 031-634-7990 Fax.031-634-7991
사 무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24 청구블루빌 #717
Tel. 031-726-0610 Fax.031-726-0620

우리넷

3.4

www.uriseed.com

정기간행물 등록 35호 Vol.57 | 우리꽃 소식지는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배포합니다. 본지의 사진자료는 무단복제/배포를 금합니다.

우리넷, 동면에서 다시 싹을 틔웁니다

우리넷은 2003년 8월 1호를 시작으로 2012년 7/8호를 끝으로 동면에 들었다. 그동안 우리넷은 우리 조경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 소식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새삼 깨달았다. 동면 후 많은 독자들의 요구와 문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사실 우리씨드 그룹은 조경용 야생화를 생산하고 연구, 품종개발을 하는 회사가 모기업인 우리꽃이 2013년 우리꽃연구소와 우리꽃영농조합법인으로 그 역할과 업무를 정확히 하고 전문성을 더욱 배가시키기 위해 사업분리를 단행했다. 그리고 조경설계 엔지니어링사업과 식재, 조경자재, 토목사업, 그리고 수직정원 벽화수와 조경용 Echo블럭 및 하천용 Echo호안블럭 및 방틀을 생산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벽화수 주식회사에 과감한 투자와 임직원을 두배 이상 늘렸다.

이 과정속에서 그동안 골프장의 코스담당, 조경설계, 시공전문인과 관공서의 많은 녹지 조경담당들을 주 대상독자로 하는 우리넷을 폐간하는 대신 정원문화를 생활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정원잡지, 월간 가든인을 2013년 3월 창간준비호를 시작으로 국내최초로 창간하였다.

월간 가든인은 우리의 정원 문화에 단비가 되었다고 자평한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호응 그리고 사랑의 조언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실용에 무게를 둔 월간 가든인은 우리꽃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정원의 실용성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잘 가꾸어진 정원의 아름다운 사진이나 해외 사례는 이미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방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소양이 부족하다고 본다.

우리의 어린 시절은 정원이나 식물의 친구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린 시절을 대부분 농촌에서 보낸 분들이야 웬만한 채소나 나무 정도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기르고 관리하는지 특히 어떻게 생활 속에서 몸이 느끼도록 누리는지의(?)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정원문화이다. 그래서 정원을 생활 속에서 독서를 하듯 손에 잡히는 곳에 두고 언제든지 여가로 혹은 마음의 양식을 얻는 수단으로 접근해서 내 몸과 마음이 일체화 되는 문화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획 된 것이 월간 가든인이다.

우리꽃은 현장의 정원과 생산 요소, 유통 요소, 그리고 시공과 관리적 요소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곳이다.

우리꽃만의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 정원잡지의 실용성이야 말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임을 자인하며 월간 가든인에 집중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원해 주던 우리넷 독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했다. 우리넷의 독자들에게 실용 정원잡지 월간 가든인의 탄생을 알리는 일을 게을리 했고,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 우리넷의 독자들과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월간 가든인의 호평에는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바로 우리넷의 강력한 힘이 폐간 된지 일년 넘게 요구를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는 독자들이 있다는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싹을 틔우자! 새롭게 더 큰 몸으로 자란 어미처럼 동면에서 깨워내자! 이게 독자들의 거부할 수 없는 요구라면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조건으로 복간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요구는 월간 가든인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후원을 당부하는 요구다. 월간 가든인은 아직 발행 초창기로 2013년을 9개월간 약 2억원의 적자를 감수할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우리넷은 전문가 그룹을 향한 격월간 조경지로 월간 가든인은 실용정원문화를 가이드하는 전문잡지로 자리매김할 것을 동면을 깨고 일어난 우리넷 추종자(?)들께 고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사랑과 편달을 바란다.

IPM 국제식물박람회

2014유럽, 우리꽃에 물들다

유럽의 하늘은 흐렸다. 그러나 영국의 겨울은 파란 잔디 위에 싱그러움이 피어나고 있었다. 스노드롭이 하얗게 고운자태를 피워내고, 먹음직스러우리만큼 아름다운 다양한 관목의 열매들은 물방울을 매단 채 더욱 싱그럽게 빛나고 있었다.

2014, IPM이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독일 북서부에 위치한 에쎈지역에서 열렸다. IPM은 'International Plant Messe'의 약자로 '국제식물박람회'라고 하고, Mess는 독일어로 '전시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세계의 농업자재, 화훼, 수목, 채소의 신품종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장은 매년 각국에서 모여든 약 6만여 명의 바이어로 성황을 이룬다. 총 12개의 관으로 구성된 전시장은 3개의 주제로 나뉘는데, 제1주제는 화훼관, 제2주제는 수목관, 제3주제는 농자재관으로 구분된다. 화훼, 채소, 조경, 수목, 종자, 비료, 상토, 농기계, 관수자재 등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전시돼 있으며 참여 업체만 1,200여 개에 이른다.

올해 우리꽃은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유럽과 세계 각 지역으로 품종을 수출, 로열티를 받고 있는 우리꽃의 품종은 IPM의 많은 전시부스에 전시되고 있었다. 특히 패랭이 품종으로 현재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다이안 투리 트윈켈'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그 반응은 가히 폭발 적이다.

우리꽃이 개발하여 공급한 다이안 투리는 지금까지 불리고 있는 패랭이의 학명인 Dianthus와 우리꽃의 영문이니셜인 URI를 결합하여 만든 이름으로 우리꽃이 개발한 '패랭이'란 뜻이다. 유럽은 네덜란드 알스메어

환한 미소로 다이안 투리 트윈켈을 들고 있는 우리씨드그룹 박공영 회장

경매장 인근에 위치한 아르마다사가 독점공급하고 있다.

아르마다의 사장인 '제라드'사장이 말하는 우리의 '다이안 투리 트윈켈'은 우선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 개화하고 추위에 매우 강하며, 겨울에도 상록일 뿐만 아니라 무가온 온실에서도 개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연중 재배출 가능하고, 특히 식물의 절간이 짧고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현재 300만 포트 이상 판매되고 있는 '카오리'라는 품종을 빠른 시간 안에 밀어내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날이 머지 않았다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품종들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기도 했다.

우리의 주력품목인 코레우리는 현재 우리꽃이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고

많은 품종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가 개발한 코레우리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로열티를 관리하는 플랜텁사가 파트너이다. 특히 플랜텁의 젊은 총각사장인 '피터'는 2세 경영인인데 코레우리의 선전에 매우 고무되어 있다.

코레우리는 현재 유럽은 물론 일본, 호주, 미국, 중동에까지 수출되어 실험재배를 거치고 있고, 올해 말부터는 미국 홈디포의 약 1700개가 넘는 매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흥분했다. 피터의 계획이 만약 실제로 진행된다면 미국에서만 약 340만 포트가 판매되어 로열티만 약 7.1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매년 더 좋은 품종을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하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분명 우리나라를 화훼시장 로열티 수입국에서 확실하게 로열티 수출국으로의 자리를 확고히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화훼산업에 있어서 독립선언과도 같은 것이다.

이번 출장길에 나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을 두루두루 시장을 살폈다. 특히 이번 출장길에 관심을 갖고 살핀 것은 관목시장에 대한 미래를 설계했다는 것이다.

많은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가 달린 관목은 물론, 잎이 아름다운 것과 꽃이 아름다운 것, 그리고 겨울에도 상록의 식물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공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겨울의 극한에서도 견디고 또한 여름철 혹서에도 견딜 수 있고 많은 기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품목과 품종들을 살피고 계획을 잡는 소중한 여행이었다. 또 함께한 두 아들과 그들의 꿈이 자라는 모습에서 더욱 행복했다.

겨울에 더욱 아름답고 따스한
말채나무류(*Cornus*)

잎이 떨어진 앙상한 나무가 예쁘다고 하면 믿을까요?
노란 나무, 붉은 나무가 커다란 화분에 심어져 있는 모습이 색다르게 다가옵니다.
이번 호에는 무리 지어 겨울에도 멋스럽게 자리한 말채나무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이드가든에서 도움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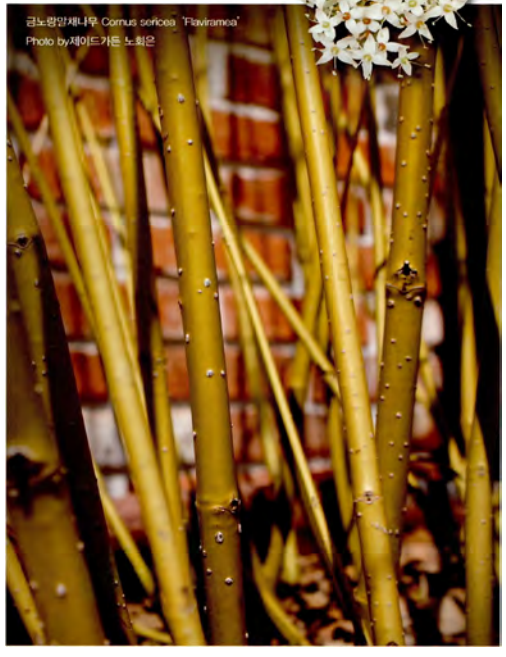
추운 날씨에 수목원을 찾은 분께서"겨울에 수목원에 오니 다양한 나무들의 수형을 자세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는 말씀을 하셨다. 겨울에 수목원을 찾은 분들은 썰렁한 겨울풍경에 실망하기 쉬운데 겨울에 잎을 떨구고 내년 봄을 준비하는 식물들의 기특한 모습과 더불어 겨울 수목원의 묘미를 발견한 그의 기쁨이 그대로 가드너에게 전달되었다. 겨울에 더욱 뚜렷해지는 식물들의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것은 또 다른 재미가 있다.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가지의 색깔을 지닌 식물들은 하얀 눈과 함께 겨울정원의 주인공이 된다. 작년 겨울에 방송되었던 인기 드라마를 봐도 가드너의 눈에는 배우들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멋진 남자주인공이 여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때도 가드너의 눈에는 겨울에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말채나무류들이 더욱 반갑다.

드라마 '그 가을 바람이 불다' 방송장면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토기형 화분에 식재된 말채나무 품종들은 다른 계절에도 아름다운 잎과 꽃을 뽐내지만 겨울에 특히 더 아름답다. 차가운 겨울에 뜨거운 사랑애기를 이끌어 가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모습과 닮았다. 층층나무과(科)의 말채나무류들은 독특한 수피의 색깔 덕분에 겨울에 특히 더 아름답다. 그래서 가든문화가 오래 전부터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겨울정원(Winter Garden)의 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삽목을 통해 증식한 어린 가지들을 겨울정원(Winter Garden) 밖으로 옮겨 놓으니 한층 더 운치 있으며 이른 봄까지 다소 부족한 겨울풍경에 큰 힘이 된다.

영국 셰빌가든(Savill Garden) 윈터가든 내 말채나무류 식재 사례


금노랑말채나무 Cornus sericea 'Flaviramea'
Photo by제이드가든 노희은

화단에 심어진 말채나무류

또한 말채나무류는 1년생의 가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깔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른봄 새싹이 올라오기 전에 지상부에서 강하게 전정을 해주고 풍부한 거름살포를 통한 양분공급이 이루어져야 매년 아름다운 가지를 감상할 수 있으며, 왕성한 번식습성을 이용하여, 잘라낸 가지들을 주변에 직삽하면 더욱 풍성한 정원을 기대할 수 있다.

차갑고 고요한 겨울정원에서 따스한 빛을 지닌 식물의 아름다움을 느낀다면 가슴속에는 봄이 먼저 찾아올 것이다.

설치가 편리하고 빠른 시공이 가능

식생매트, 조경현장 적용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매우 역동성 있는 나라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해외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그리고 공공의 정원 최고의 투자 국가(?)가 된 나라다. 일반적인 정원을 구성할 때 필요한 관목 혹은 숙근성의 조경식물은 초기에는 뿌리를 땅에서 캐내어 유통하게 된다. 이후, 시장이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면 작은 포트에서 생산, 어린유묘기 상태로 유통하게 되며 점차 발전, 안정되고 고급화 되면 용기가 큰 화분에 그 식물이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재배되어 유통된다. 언제 심어도 바로 완성된 정원을 볼 수 있는 상태로 길러 판매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정원이 발전되고 유명한 영국,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하는 북아메리카 그리고 가까운 일본의 조경용 정원식물 용기재배는 매우 안정되어 있다. 식물에 따른 키와 폭 그리고 생태적인 특성에 맞추어 용기의 크기가 결정되고 일정 재배기간을 거친 상품이 유통된다. 따라서 잘 재배되어 유통되는 식물을 구입해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 혹은 배치를 하는 것으로도 정원은 완성되게 되는 것이다. 보통 화분 크기는 직경 21~30cm정도가 정원용으로 많이 판매되고 분화용의 경우 그보다 작은 포트의 규격식물이 유통된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식생매트라는 규격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공공의 정원에 식재 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식생매트로 설계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역시 한국의 역동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식생매트 개념과 해외 선진국의 정원 완성형 대형포트와는 매우 다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색생매트는 각 회사와 농가마다 조금씩 다른 규격으로 생산 출하하고 있지만, 흔히, 예전의 뿌리상태로 유통되던 시기에 많이 이용된 모판상장에 네트나 기타 방법으로 배양토를 채우고 종자를 파종하거나 삽목, 트레이 묘 등을 심고, 재배 후 납품된다. 그리고 현장에 반입된 후 매트상태로 차곡차곡 밀착시켜 식재하면 가장 왕성한 최상의 정원모습이 완성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공공의 정원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종류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죽어 없어지거나 잡초밭으로 되돌아간다. 만약 일년초이거나 정해진 짧은 기간 동안 조성되는 축제장 공공정원의 경우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만 그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가능한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와 같은 목적이 아니라면 많은 문제가 있다.

자연에서의 식물은 많은 다른 식물들과 함께 살아간다. 적당한 경쟁과 공존, 그리고 생태적, 환경적 요건까지도 꺼안으며 건강한 생육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식생매트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정원에 있어 식물별 재배규격과 방법에 대한 검토는 이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다.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을 예상하면서도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성숙된 공공의 정원, 아니 우리나라의 전체 정원문화의 발전을 위해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으면 하는 바램에서다.

유럽의 완성형 화분에 심겨지는 식물들은 일반적인 종자로 증식되는 식물이 아닌 분주나 삽목에 의해 증식된다. 다라서 용기 안에서 다른 식물체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아 하나의 개체로 적절한 자람을 유지한다. 하지만 우리의 식생매트 안의 식물은 수만 개체의 종자로 번식되어진 식물들이 서로 이기려고 키를 키우고 나약하게 성장하여 유통시 아름다운 폼을 유지한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세력이 약해져버린 정원의 식물들로 인해 모두 황폐한 정원으로 되돌려지는 것이다. 오히려 적절하게 혼합된 종자를 처리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 비용 차이는 이미 100배가 난다. 그러면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식생매트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매트형이 나은 식물은 거의 대부분이 매트로 재배되고, 거래되고 적용된다. 이들 매트 재배식물들은 런너를 뻗어 번식하거나 땅을 기는 식물들이다. 특히 땅 피복식물인 헤데라(송악), 애기맥문동 그리고 비관리형 옥상에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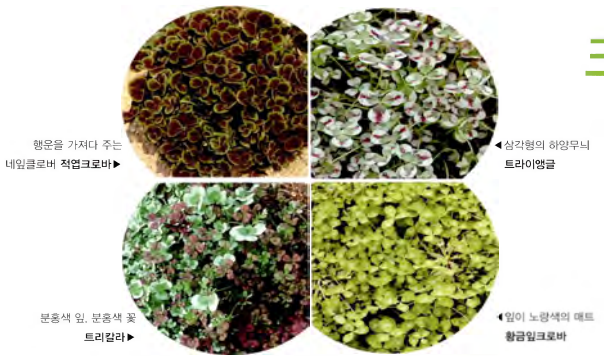
식생매트 조달등록 품목표

식별번호	품 명	규 격	단 가
22466059	꽃창포	340x500mm	13,600
22467108	관중	340x500mm	14,400
22467109	샤스타데이지	340x500mm	11,200
22467111	아주가	340x500mm	13,600
22467114	무늬쑥부쟁이	340x500mm	12,400
22467118	꼬리풀	340x500mm	13,600
22467119	상록양지꽃	340x500mm	13,600
22467120	적업실장미	340x500mm	12,400
22467121	클렘스	340x500mm	13,600
22467122	수호초	340x500mm	13,600
22467123	무늬떼사초	340x500mm	15,600
22467124	역문동	340x500mm	11,200
22467125	적엽클로버	340x500mm	12,400
22467126	상록치리매랭이	340x500mm	15,200
22467127	억새	340x500mm	11,200
22467128	수크렁	340x500mm	11,200
22467129	물억새	340x500mm	11,200
22467130	띠	340x500mm	12,400
22467131	갈대	340x500mm	11,200
22467132	벌개미취	340x500mm	11,200
22467133	원추리	340x500mm	13,600
22467134	꽃범의꼬리	340x500mm	12,400
22467135	금계국	340x500mm	12,400
22467136	가우라	340x500mm	12,400
22467137	부채붓꽃	340x500mm	13,600
22467141	양지꽃	340x500mm	12,400
22467144	아스틸베	340x500mm	14,400
22467146	좀새풀	340x500mm	13,600
22467681	사초(새뱅루마운틴)	340x500mm	13,600
22467684	가우라(베이비)	340x500mm	15,600
22477396	원추리(시카고)	340x500mm	13,600
22477400	옥잠화	340x500mm	14,000
22477408	송악	340x500mm	12,400
22349417	핏꽃	340x500mm	10,500
22349416	부처꽃	340x500mm	10,500
22349413	거북머리	340x500mm	14,000
22349425	노랑속근코스모스	340x500mm	12,300
22349426	달개비	340x500mm	13,100
22349423	꽃창다	340x500mm	10,500
22349421	원의다리	340x500mm	11,400
22349432	쑤나비비추	340x500mm	13,100
22349435	바위취	340x500mm	10,500
22349437	시사	340x500mm	12,300
22349440	세덤	340x500mm	9,700
22349445	스웰라원추리	340x500mm	12,300
22349449	왕아주가	340x500mm	13,100
22349450	왜성아스타	340x500mm	11,400
22349453	톰톰비단	340x500mm	12,300
22349454	홍띠	340x500mm	14,900
22354233	카밋추름밍	340x500mm	11,400
22354236	꽃창(불알이)	340x500mm	12,300
22354237	애기나시아	340x500mm	12,300

이 적용되는 포복형 세덤매트와 기타 런너를 내어 기거나 땅속으로 이동번식하는 식물들이 이렇게 재배되어 유통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식물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재식거리는 식물이 다 자랐을 때의 키 혹은 폭과 같은 넓이를 두어 재배하면 좋다. 그러면 억새는 2m, 후룩스는 80cm, 관중은 60cm, 옥잠은 60cm가 좋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조경전문가에겐 이해할 수 없겠지만 사실이다. 억새의 아름다운 자태는 쓰러지지 않은 상태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잎을 펼친 모습으로 그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리고 옆에서 아름다운 후룩스가 키 80cm에 혹 70cm쯤으로 자라서 웃는 모습, 그리고 봄에 자랐던 금낭화의 마른 줄기를 지나 다시 가을에 피어날 아스타의 힘찬 볼 형의 입모, 다시 억새의 위용…. 이들 식물은 조경가의 선택에 의해 심겨진 자리에서 포기를 키우며 움직이지 않고 충분한 태양과 양분 그리고 바람까지도 이들을 매우 튼튼하고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자라도록 허락한다. 이들 식물을 일정공간에 밀어 넣어 콩나물 기르듯이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지만 벌개미취, 아주가, 비비추, 맥문동, 송악, 돌나물 등 기거나 포복지를 내는 식물은 뿌리가 얕고 물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 깊고 큰 포트보다는 얇고 넓은 용기에 재배하여 매트화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 따라서 이제 우리 조경계도 식물의 생태와 조경기법에 따른 식물의 선택과 재배 유통에 이르기까지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공공의 정원에 있어서 즉시 효과를 보면서도 안정된 생태적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공공의 정원은 한국이 최고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청계천에서 4대강에서 그리고 서울의 여러 공공정원에서 보았다.

이제 되돌아보고 정리하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정원을 연출할 수 있는 역동성을 발견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항상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머리를 맞대고 공동 노력하는 만큼 시장이 성숙되어지는 것이다.



크로바도 꽃 이다.

우리꽃 크로바 4종 아름다운 잎,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생명력,
행운, 행복을 드립니다.

농장가격 3치 1,000원, 매트단가 12,300원
담당전화 : 010-5018-9063
T. 031-634-7990 F.031-634-7991
www.uriseed.com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아름다움과 도시공학이 만났다! –에코홀(Echo Hole) 시스템

북화수목원

물고기 보금자리 주택, 이제 안전합니다!

<에코방틀>

에코방틀의 특징

- 거친 폭우와 물살에도 물고기와 식물의 안전한 보금자리 제공
- 하천바닥, 경계 모두가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높은 안정성 확보
- 제방 및 저수 호안법면의 세굴 방지 및 아름다운 하천복원
- 식물 훼손 후 회복력 빠름
- 조립 및 설치가 간편하여 시공성이 우수
- 에코홀의 경사각은 토양과 자갈을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
- 폭우에 의한 침수 시에도 식물 안정 및 식물의 빠른 회복 가능

용도

제수호안의 방틀, 하천호안, 식생호안, 사면보호, 세굴방지

콘크리트에 직접 심는 수직정원!

<에코축대>

에코축대의 특징

- 숨은 1미터의 공간을 찾아 드립니다.
- 도로의 경계를 이루는 안전한 녹지축! 비용도 저렴합니다.
- 수직 친환경 축대로 꽃이 피는 축대 화단을 만들어 보세요.

토지의 경계를 이루는 축대! 에코축대

아름다운 소통의 시작! 꽃담!

<에코휀스>

용도

주택단지, 아파트경계담장, 축대 경계 및 화단, 실내·실외 인테리어 조경 제품 등

에코휀스의 특징

- 식재를 통한 개성 있는 공간 창출
- 실내, 실외 구분 없이 설치 가능
- 지역축제장소에서 간이 담장 및 공간의 분리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 사용가능
- 조립 및 설치가 간편하여 시공성이 우수
- 식재가 없어도 디자인 경관 연출 가능

더욱 강해지는 구조 안전성, 옥벽!

<에코홀옹벽>

에코홀 옹벽의 특징

- 에코홀 옹벽 시스템 공학은 어떤 토질에도 적합하게 대응, 변신합니다.
- 안전은 올리고 비용은 줄여듭니다.
- 수직의 옹벽, 이제 정원의 한 축이 됩니다.
- 답답하고 미관상 좋지 않았던 옹벽, 이제 아름다운 식물로 디자인해 보세요. 옹벽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안전

자연과 행복을 설계하는

에코홀 시스템공학 <EHES>

에코호안블럭의 특징

- 하천 녹화 비율 증대
- 고정핀에 의한 급경사(상류지역) 시공가능
- 식생의 유실 염려가 적음
- 내구성, 시공성 양호
- 다양한 식생조성으로 아름다운 경관 조성

◆ 타공법과의 비교 : 하천 호안의 재해방영을 사전 예방하고, 친환경적이며 시공성이 양호하고, 생애주기비용(LCC:Life cycle cost)을 우선 검토한 결과 하천 호안에서 정, 아류지역(연속성 유지)에서 적용 가능하고, 식생의 유실 염려가 적은 에코호안블럭이 유리한 것으로 검토됨

용도

제수호안의 방틀, 하천호안, 식생호안, 사면보호, 세굴방지 등

호안사면, 이제 토양 유실은 없습니다!

<에코호안블럭>

에코홀 시스템이란 ?

수직 혹은 사면을 이루는 콘크리트옹벽, 호안블럭, 보강토블럭, 방틀 등의 구조물에 있어 그 구조물 내부를 이루는 토양이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경사각을 이루어 홀을 형성하고 홀과 홀더 안에 심겨진 식물이 안전하게 활착되도록 물과 양분을 제공하는 에코토낭으로 이루어진 구조물 녹화시스템 특허이다. 구조물의 안전성은 더욱 올리고 식물을 구조물에 직접 심는 방법이다.

에코토낭 이란 ?

양질의 토양에 적절한 양분과 수분 보습제를 혼합한 것으로 식물 식재 전 먼저 투입 후 식물을 꽂아 주고 물을 주면 부풀어 오르면서 약 한달 이상 식물에 물을 천천히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활착하게 됩니다.

시공 및 설치 상담

031-726-0610

영업지사 모집

지역별 영업력 있는 지사장님을 모십니다. (010-5915-4710)

세계 최초의 황홀한 분홍색 숙근 코레우리!

MIRI 미리

정원의 안방마님, 신혼이 따로 없다!

미~리 미~리 미리~뽕~

계절별로 화색을 바꾸는 정원의 안방마님!
봄부터 가을까지 노랑으로 시작해 분홍으로 피어납니다.

농장가격 : 3치 1,500원, 4치 2,500원 6치 12,000
전화 010-5018-9063
Tel. 031-634-7990 Fax.031-634-7991
www.uriseed.com
본 상품은 무단 증식, 판매가 불가합니다.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너무 쉽고 간단한 채소재배 백

폴리 텃밭

무겁고 투박한 용기, 차라리 최고급 화분으로 교체하시고 1년생 채소 및 화초는 가볍고 자유로운 폴리 텃밭을 이용하세요.

폴리텃밭 1호(상추) 폴리텃밭 2호(당근) 폴리텃밭 3호(토마토) 폴리텃밭 4호(참보)

이제 채소 재배에 무리한 용기는 필요 없습니다.
싸고, 가볍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 | 옥상, 베란다, 어떤 환경도 Ok!

품목	재질	규격(cm)	가격(원)	용도
폴리 1호(샐러드)	PE (녹색)	55×15×15	4,500	상추 등 잎채소, 화초용
폴리 2호(당근)	PE (녹색)	45×40×27	5,000	당근 등 뿌리채소 및 엽채채소
폴리 3호(토마토)	PE (녹색)	55×35×20	6,000	잎채소 및 고추, 토마토용
폴리 4호(참보)	PE (녹색)	45×45×45	7,500	다용도

Tel : 010-3117-2262
Tel : 031-634-7990
Fax : 031-634-7991
홈페이지 www.gardenjoa.com 가든조아

접었다 폈다, 열었다 닫았다.

포켓가든-감자용

감자, 고구마 재배 중에도 고추 따듯 수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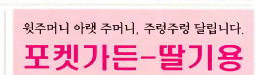
품목	재질	규격(cm)	가격(원)	용도
감자재배백	PE (녹색) / 철사	30×45	7,500	감자, 고구마

전화 010-3117-2262 Tel. 031-634-7990
Fax.031-634-7991
www.gardenjoa.com 가든조아

천상의 아름다움 하늘국화

한국시장에 상륙합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분재구름 꽃방석을 연출합니다.
꽃이, 화분, 줄기, 뿌리, 꽃잎 등 모두 식용입니다.
농장가격 : 4치 2,000원 | 6치 7,000원 | 매트 20,000원



전화 010-3288-2844 Tel. 031-634-7990 Fax.031-634-7991
www.uriseed.com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봄부터 가을까지 한방에 끝~
우리의 환경과 법면 안정을 고려한 소비자의 선택!

우리법면 혼합종

우리지형에 알맞은 26종의 야생화가 혼합되어 10년이 지나도 그 아름다움은 더해만 갑니다.

농장가격 1kg(100㎡용) 154,000원(부가세 포함) Seed Spray 시공도 가능합니다. 2000㎡를 기본으로 4,180/㎡(부가세 포함)

전화 010-5018-9063
Tel. 031-634-7990 Fax.031-634-7991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윗주머니 아랫 주머니, 주렁주렁 달립니다.

포켓가든-딸기용

딸기, 작은 면적에 많이 심을 수 있습니다. 상추, 당근 등 소형 엽근채 재배에도 아주 효과 적입니다.

품목	재질	규격(cm)	가격(원)	용도
딸기재배백	PE (녹색) / 철사	30×60	10,500	딸기, 소형 엽근채류

Tel : 010-3117-2262
Tel : 031-634-7990
Fax : 031-634-7991
홈페이지 www.gardenjoa.com 가든조아

간단한 수직정원, 베란다 걸이용

포켓가든-벽면용

꽃, 채소 무엇이든 OK!
유치원, 학교의 생태교재로, 창가, 베란다, 담리 난간, 벽면에 아름다운 정원을 연출합니다.

품목	재질	규격(cm)	가격(원)	용도
포켓가든	부직포(갈색)	50×37.5	37,500	수직정원 연출

Tel : 010-3117-2262
Tel : 031-634-7990
Fax : 031-634-7991
홈페이지 www.gardenjoa.com 가든조아

3, 4월은 봄이다. 봄은 시작이고 시작이라면 종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3, 4월이 되면 마음이 들뜨기 시작한다. 우리넷 독자분들의 마음에 봄바람이 드는 것이다.

3월의 선택이 일 년을 좌우한다.
새로운 화단 준비, 전정하기 등 3월에 마쳐야 할 봄 준비로 정원에는 할 일이 많다. 바야흐로 씨를 뿌리고 잡초를 캐고, 식재하는 계획들을 이달에 세워야 한다.
올 한 해 정원계획표를 작성하고 종자를 선정하고 밭을 준비하는 과정에 새로운 행복감이 싹트는 것이다. 우선 종자회사의 카탈로그 혹은 관심있는 품목들의 새로운 신품종을 알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다.
외부 노지는 꽃샘추위와 동장군의 시샘으로 땅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종자를 뿌려도 발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가정에서도 실내에서 미리 종자를 뿌려 기르다가 4월이 되면 노지에 내거나 작은 정원용 비닐하우스에 심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물론 노지에 심는 것은 추위에 강한 품종으로 서리 피해를 줌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서울과 중부지방은 마지막 서리가 내리는 날이 5월 20일이다. 때문에 항상 일기예보를 잘 살펴 안전한 보살핌을 하여야 한다. 텃밭을 준비하고 퇴비를 넣는 것도 지금 할 일이다. 삽으로 땅을 뒤집고 경운을 하고 우리밭의 토양 환경과 올해 심을 작물에 따른 퇴비와 비료의 선정과 그 양을 결정하는 시기다.
그리고 정원의 야생화와 작은 나무를 일컫는 관목과 과수나무, 정원수에도 각각의 조건에 따른 퇴비와 비료를 주는 시기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퇴비는 거의 모든 작물에게 기초체력을 길러주는 종합 영양제이다. 그리고 밭의 토양환경과 작물, 그리고 시기에 따른 비료는 작물들의 간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간식은 조금씩 자주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식물들이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식물도 사람과 같아서 주변을 먼저 정리하여 주는 것이 좋다. 우선 관목으로 이루어진 생울타리를 깨끗하게 자르는 일은 기본이다. 과일나무의 죽은 가지와 웃자람가지, 안으로 뻗은 가지, 겹친 가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주어 잎이 무성해졌을 때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모두 고르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한다.
나무의 전정(가지 자르기)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각 식물들마다 꽃피는 시기와 가지가 다른 점에 있다. 이른 봄 일찍 피우는 화목 종류인 철쭉을 비롯한 진달래과 식물들 조팝, 라일락, 목련, 모란 등은 꽃이 피기 전 가지를 자르면 꽃을 볼 수 없게 된다. 이들 식물들은 꽃을 보고난 후 장마기 이전까지 큰 가지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복숭아, 살구, 매실, 앵두 등은

나무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열매지의 건강에 따라서 적당히 솎아 주는 방식이 좋다. 이때도 죽은 가지, 웃자란 가지, 속가지, 겹친 가지 등은 잘라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과, 배 등 3년생 가지에 꽃 피는 과일나무는 꽃피는 열매가지가 더욱 뚜렷하므로 나중에 달고 싶은 열매 숫자를 생각하면서 가지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다. 물론 나무의 건강 상태와 연령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달거나 작게 다는 것도 좋지는 않다. 1년생 가지 혹은 상관없이 피는 감나무, 포도나무, 대추나무 등은 오히려 모양잡기가 쉽다. 이들 대부분의 나무는 꽃이 있는 듯 없는 듯하다.

장미에 사골뼈 묻어주면 탐스러워진다.

정원의 장미, 클레마티스, 붓들레야 등의 종류도 바로 이 시기에 전정을 해주게 되는데 특히 클레마티스는 줄기에서 가장 큰 눈 위는 모두 잘라내면 된다. 사실 가장 큰 눈 위의 가지들도 방치하면 자라기는 하지만 꽃이 피는 튼튼한 가지로 자라지 않고 식물의 품만 망치게 된다.
장미는 전년도 자란 튼튼한 가지와 전년에 2년차 되어 자른 부위에서 새 가지가 자란 가지를 1~3마디를 남기고 자르면 된다. 장미는 특히 동물성 퇴비를 좋아한다. 사골이나 삼계탕 뼈 등을 묻어주면 꽃이 더 탐스럽고 색이 선명하게 된다.

붓들레야는 우리나라에서는 새가지를 받는 게 좋은데 꽃이 조금 늦게 피는 단점이 있으므로 전년도 자란 많은 가지 중 3~5개의 가지를 남기고 모두 밑에서 잘라 새로운 튼튼한 가지를 받는 것이 더욱 탐스러운 꽃을 얻을 수 있다.

야생화의 전정은 전년도에 자란 마른 줄기를 잘라주는 것으로 완료되는데 간혹 반관목의 형태를 갖거나 상록의 식물들은 그 특성에 맞게 잘라 주어야 한다. 보통 이들도 자세히 보면 살아 있는 줄기 중 가장 큰 눈위를 자르면 되고 상록의 식물들은 잎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정리를 하면된다. 그라스나 붓꽃류 등은 잎을 너무 짧게 자르는 것은 좋지 않다. 작은 꽃샘추위에도 꽃눈이 상하거나 새눈이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못이 있는 정원에 아직 얼음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 얼음을 깨거나 하면 물고기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어 좋지 않다. 다만 수변식물의 뿌리 부분이 녹기를 기다려 분주는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좋다.

너무 늦게 하게 되면 봄 식물의 경우 개화를 하는데 좋지 않기 때문이다.

식물의 포기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3월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야생화 중 포기를 나누어 번식하는 식물들의 포기를 나누는 일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정원의 디자인을 바꾸는 시기이기도 한다. 포기를 나누거나 교체할 식물을 캐내고 새로운 포기로 나누거나 새로운 품종들의 자리를 바꿀 수 있는 시기로 사실 한 해 정원의 느낌과 색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간이다.
지금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즐거움보다 깨어나고 있는 정원에 우리넷 독자분들의 손길이 무엇보다 행복한 시기이다.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지만 우리들 정원의 아름다운 식물은 주인의 사랑스런 손길에 예뻐진다. 왜냐하면 우리정원의 예쁜 귀염둥이들은 모두 공주병, 왕자병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3, 4월의 체크리스트

- **목재 방부처리 등 가든 시설 보수**
  - 데크 방부처리 및 정원 경계 흔들리는 바위나 돌 고정과 같은 정원 주변의 시설들을 보수 보완

- **작업 공간 정리, 도구 손질하기**
  - 전정가위, 톱 등 도구 손질과 온실 규칙적으로 정리, 환기, 온실 내 죽은 식물들 정리, 화분정리

- **정원수 및 과수 등 전정 및 야생화 마른 줄기 정리**
  - 정원수 다듬기, 과일나무 연식과 과수 특성에 따른 전정 및 야생화의 마른 줄기 전정, 그라스 자르기 너무 짧지 않게.

- **정원수, 과일나무 등과 정원의 잡초제거 및 퇴비 주기**
  - 정원의 다년생 잡초 및 월년생 잡초 제거하고 퇴비를 충분히 주기, 정원에 마사토 손질과 깔기와 바크(나무 파쇄조각) 깔기. 특히 락가든 잡초제거

- **분재, 관엽 등 용기 재배 식물 화분갈이**
  - 실내 혹은 실외 용기 재배 식물들의 특성에 따른 분갈이와 유박 등 퇴비 주기

- **집근처 화단에 봄 식물 심기**
  - 3월의 가든 식물
  - 남부지방으로 무스카리와 수선화의 빠른 품종 개화
  - 복수초, 바람꽃 개화

우리꽃 정원에 살아 숨쉬는 이달의 추천 야생화

구름너도부추

금강애기기린초

꽃백합

원의다리

노랑에키네시아

부처꽃 팁

샤스타데이지 슈프레임

숙근왜성천인국

스텔라원추리

일계밀라

에키네시아

큰너도부추

털수염풀

후룩스 봄바람

코레우리 Coreuri

코레우리는 Coreopsis의 우리꽃이 계발한 품종에 국내 원예종 이름으로 명명된 식물이다. 코레우리는 크게 두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한성이 대체로 약한 'Coreopsis rosea'와 내한성이 매우 강한 'Coreopsis verticillata'가 있다. 두 품목군 모두 현재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우리꽃이 가장 많은 품종을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로열티를 받고 있는 품목이다. 햇볕을 매우 좋아하는 양지성 식물로 5월부터 서리가 올 때까지 장기 개화하는 특성으로 앞으로 매우 기대되는 품종이다. 참고로 Coreopsis의 원예품종인 코레우리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며 우리꽃의 허락 없이 무단 증식, 판매할 수 없다.

1.로세아(Coreopsis rosea) 계통

내한성이 약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개화지속

선사인

우리드림 레드

팅커벨

우리드림 핑크

2. 버티실라타(Coreopsis verticillata) 계통

내한성이 매우 강하고, 5월 말부터 11월 서리가 내릴 때까지 개화 지속

노랑숙근코스모스

레몬사벳

미스제이

애기노랑금계국

오렌지숙근코스모스

파파야

꽃잔디 Phlox

꽃잔디는 꽃고비과의 지피식물로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이다. 일반적으로 군식으로 식재하는데, 마치 꽃방석을 연상케할 만큼 아름다운 봄꽃이다. 조경용으로 적용 할 때는 1품종을 식재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색상의 여러품종을 디자인하여 식재하는 것이 경관적으로 유리하다.

꽃잔디

꽃잔디 레드아이

꽃잔디 레드킹

꽃잔디 에메랄드

꽃잔디 레드씬

꽃잔디 화이트

왜성금계국 시리즈 Coreopsis

키기 작고 장기개화되는 금계국 품종으로 키가 작아 쓰러짐이 없고 생육이 강건하다
혼합식재는 물론 대면적 식재에도 좋다. 왜성사계(겹꽃), 무늬금계국(잎에 노란무늬), 환희(밝은 노랑꽃), 별무늬(꽃에 적색의 무늬) 등 다양한 품종을 구미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금계국 별무늬

금계국 왜성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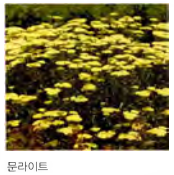
금계국 환희

무늬금계국

톱풀(아킬레아) Achillea

톱풀은 북방계식물로 8여종의 속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 대체로 러너형과 포기형이 있고 키는 아주 작은 것부터 2m이상 되는 조유도 있다. 화색은 매우 다양한데 하양, 노랑, 붉은 계통이 대부분이다.
생명력이 매우 강하여 어떤 품종은 잡초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주의하여 적용한다.
대체로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지만 특별히 가리지 않는 침략자로 변하기도 한다.

레몬


문라이트

비단

오렌지

파스텔

화이트캔디

꽃백합 Lilium

강렬한 여름구는 식물로 절화뿐만 아니라 정원식물로도 매우 좋다.
단일 대군락 식물들과 혼성식재에 매우 좋은 소재로 특히 철쭉 등 관목사이에 혼성식재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수목하부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양호하다.
키가 큰 품종이 주로 조경용으로 사용되며 왜성종은 분화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옥잠(호스타) Hosta

음지조경의 대표종으로 수목하부, 건물하부 음지에 군락지 조성을 하면 좋고 생태연못 조성에도 빠질 수 없는 소재이다. 무늬종부터 잎의 질감이 좋은 수종 등 매우 다양한 품종이 있어 음지조경의 고급화에 필수적인 소재이다.
출하규격도 다양하여 4치포트부터 식재 후 바로 완성형이 가능한 6치포트, 식생매트가 있다.

옥잠 골든타이라

옥잠 맘마미아

옥잠 벤츄리

옥잠 블루문

옥잠 블루엔젤

옥잠 썬

옥잠 알보마기나타

옥잠 엘레강스

에키나 레인보우 Echinacea 'Rainbow'

키가 작은 신품종 에키나로 화색이 매우 아름답다. 키가 작아 쓰러짐이 없고 생육이 강건하며 고급스런 화색이 다양하게 혼합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낸다. 혼합식재는 물론 대면적 식재에도 좋다.

왜성수크령 Pennisetum

수크령은 가을을 수놓은 대표적인 그라스이다. 일반 수크령이 와일드한 느낌이라면 키가 작은 왜성수크령은 매우 부드러운 이미지를 자아낸다. 8월부터 피기 시작한 하얀색톤의 꽃대는 가을까지 꽃무리를 이루며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큰 무리로 대면적 군락식재하면 유리하다.

세계시장에서 각광 받는

우리꽃 코레우리

우리드림 시리즈

세계최초로 흰색, 분홍, 빨강, 노랑, 주황까지 분화용은 물론 정원용의 최고의 상품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화색으로 한번 식재로 일년이 행복합니다.

품 종	화기(월)	화 색	초장(cm)	내한성(℃)	생산규격(cm)	판매단가(원)	비 고
우리드림	5~11	백.적.황.주.분	50내외	-10(Zone6)	12 비닐 20자동급수화분 30자동급수화분	1,500 12,000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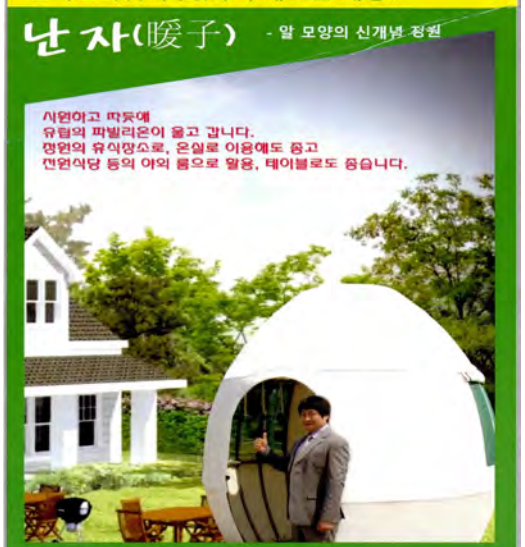
담당전화 : 010-5018-9063, 010-3288-2844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www.uriseed.com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정자문화(亭子文化)의 새로운 계승!

난자(暖子) - 알 모양의 신개념 정원

시원하고 따뜻해
유럽의 파빌리온이 옮고 갑니다.
정원의 휴식장소로, 온실로 이용해도 좋고
전원식당 등의 여외 룸으로 활용, 테이블로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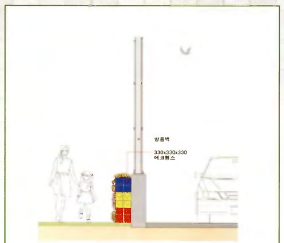
품목	재질	규격(M)	가격	용도
한국형 파빌리온 난자(暖子)	고급천막천	D7.4XH2.5	재작사양에 따른 지이	정원 휴게소, 온실, 세미나 실, 유치원 반 실습실, 식당의 여외 간이룸 (녹색 쉼터 영는 소재사용)
	고급천막천	D7.8XH3.0		
	고급천막천	D3.2XH3.5		

백화주식회사 전화 031-726-0610, 팩스 031-726-0620 www.백화수.com 구입 및 정자상담 : 010-8817-0610

아름다운 꽃담, 아름다운 생울타리!

에코(Echo) 휀스

실내는 파티션, 실외엔 꽃담으로 간단한 조립과 설치로 이제 아름다운 경계를 연출합니다.
도로 띠녹지, 동선 유도, 화단대용 등 다양하게 이용되며 자동급수시설을 설치 관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원도, 거리에도, 담장도, 벽면도, 이제 디자인 정원을 연출하십시오.


방음벽 설치

옹벽 설치

품 목	재 질	규 격(cm)	가 격(㎡)	용 도
Echo 휀스	게비온형 스텐레스, 부직포	33x33x33	370,000	꽃담, 생울타리, 꽃탑, 벽면 녹화, 파티션, 도로 띠녹지 연출, 화분 등 급수공급박스는 인공구조물 위에 간이 설치시 선택사양
	급수공급박스	180x43x33	300,000	
		240x43x33	400,000	
		320x43x33	500,000	

구입 및 시공상담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문의전화 : 031-634-7990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아름다운 우리꽃 정원이 교실!

2014, 제5기 이천그린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수강료가 부담이라 망설여 진다면 포기하십시오!

이천 그린아카데미는 단순한 텃밭, 정원, 원예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특별한 분들만 모시는 정원문화 캠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원으로의 산책을 꿈꾸시면 됩니다.
정원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모습을 바꾸어볼 때마다 달라지는
우리꽃 정원에서 느끼는 문화소양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목마른 정원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함께하는 점심식사는 정원으로의 소풍입니다.

■ 모 집 안 내 ■

- 모집인원 : 약 30명
- 수 강 비 : 70 만원
- 교육일정 : 4~7월(매주 수요일)
- 교육시간 : 10시 30분~3시 30분까지(매주 4시간)
- 교육장소 :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87
- 담당전화 : 010-3117-2262, 010-8636-2664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www.uriseed.com

국화 500일간 사랑에 빠지다.

우리꽃 국화분재 교실

함평나비축제의 신화, 이순영소장님이 이끄는 감동의 패밀리, 그룹 강의 2주에 한번, 국화에 빠지다.
국화 분재는 일반적인 나무 분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1년으로 일생을 경험하는 국화분재의 사랑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 모 집 안 내 ■

- 모집인원 : 약 30명
- 수 강 비 : 50만원
- 교육일정 : 5~11월(매주 목요일)
- 교육시간 : 3시~5시까지(격주 2시간)
- 교육장소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87
- 담당전화 : 010-3117-2262, 010-8636-2664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www.uriseed.com

국내최초의 가든잡지, 정원문화의 실용 가이드북

월간 가든인

책을 잡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가든인이 됩니다.
도시민을 위한 실용적 가든 전문잡지로 식물의 선정과 관리, 정원 디자인, 도시농업, 실내, 실외 정원 등 전문 상업적 가든문화가 아닌 생활속 가든문화를 실용적으로 풀어 정원문화의 소양을 길러 주는 화제의 잡지입니다.
아직은 척박한 정원문화를 독자여러분과 함께 펼쳐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우리나라를 행복하게 합니다.
정원은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광고 게재 문의 : 010-5915-4710

정기구독 문의 : 010-5915-4710, 010-3399-3430
정상가 **12만원** 1년 정기구독 **10만원**, 3년 정기구독 **25만원**, 10년 정기구독 **50만원**
구독료 입금계좌 농협은행 317-0005-7946-71 예금주)우리꽃영농조합법인

드디어 4/14일 가든조아가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기존 온라인과 함께 병행하여 이천 우리꽃 농장내에 가든센터가 생겼습니다.
야외 정원을 위한 정원용품, 가든도구, 텃밭용품 등과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새싹재배기, 화분과 아생화, 채소종자 등 원예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재가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소품, 멘틱 가구, 향초, 선물용 상품들도 함께 가든조아에서 만나보세요.
또한, 계절/시기에 따라 다양한 식물 모종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힘드시다면 가든조아 온라인 쇼핑몰로도 구매가능합니다.

연락처 : 031-634-7990 쇼핑몰 : www.gardenjoa.com